

‘서다’의 의미에 대한 연구

이 경 은*

I. 서론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동사 ‘서다’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 ‘서다’류의 합성어를 분석하여 ‘서다’의 핵심의미를 파악하고 그 핵심의미가 합성어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다의어와 다의성에 대한 논의는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II장에서는 ‘서다’의 다의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을 시작한다. ‘서다’의 다의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에서의 기술을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록 전통적인 뜻풀이나 용례 나열에 그칠지라도, 사전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서다’ 안에 어떠한 다양한 의미들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II.1절에서 우선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나타난 ‘서다’의 의미 기술을 정리한다. 두 사전에서의 ‘서다’ 의미 기술을 비교함으로써 기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서다’의 다의적 의미를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II.2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서다’의 의미들을 살펴본다. II장에서의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한국어 동사 ‘서다’가 어떠한 다의적 의미들로 언중들에게 인지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작업은 이후 III장에서 ‘서다’의 다의적 의미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서다’의 다의성을 분석한다. ‘서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 중 원형의미와 핵심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IV장에서는 사전이나 선행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나열되었던 ‘서다’의 다양한 의미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찰한다.

II. ‘서다’의 의미 기술

1.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 기술된 ‘서다’의 의미 분석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먼저 격들의 문법적 제약을 통해 ‘서다’의 다의성을 분석했다. 해당 의미가 사용되는 통사적인 구조를 먼저 제시하였다. 이후 같은 격들을 가지는 ‘서다’의 다양한 의미를 전통적인 뜻풀이와 용례 나열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나타나는 ‘서다’의 의미 기술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서다 [동사]

I	1.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	차렷 자세로 서다.
	2. 처져 있던 것이 똑바로 위를 향하여 곧게 되다.	토끼의 귀가 쭏긋 서다.
	3. 계획, 결심, 자신감 따위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다.	결심이 서다.
	4. 무딘 것이 날카롭게 되다.	칼날이 시퍼렇게 서다.
	5.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가 올바르게 있게 되거나 짜이다.	교통질서가 서다.
	6. 아이가 배 속에 생기다.	아이가 서는지 입덧이 심하다.
	7. 줄이나 주름 따위가 두드러지게 생기다.	바지 주름이 서다.

	8. 물품을 생산하는 기계 따위가 작동이 멈추다.	갑자기 기계가 선 이유는 정비 불량이었다.
	9. 남자의 성기가 발기되다.	
II [...에]	1. 부피를 가진 어떤 물체가 땅 위에 수직의 상태로 있게 되다.	한 그루의 나무가 교문 옆에 서 있다.
	2. 나라나 기관 따위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다.	산골에도 학교가 서다.
	3.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다.	작은 시침바늘은 12시에 서 있었다.
	4. 사람이 어떤 위치나 처지에 있게 되거나 놓이다.	반대 입장에 서다.
	5. 장이나 씨름판 따위가 열리다.	이곳에는 오일장이 선다.
	6. 어떤 모양이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	그의 두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다.
III [...에/에게]	1. 체면 따위가 바로 유지되다.	그는 직장을 잃고 나서 가족에게 위신이 서지 않아서 괴로웠다.
IV [...을]	1.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다.	주례를 서다.
	2. 줄을 짓다.	4열 종대로 줄을 서다.
V [북한에]	1. 문제 따위가 설정되거나 나사다.	

《연세한국어사전》도 ‘서다’에 대해 먼저 통사적 격들의 문법적 제약으로 분류한다. 해당 의미가 사용되는 통사적인 구조를 먼저 제시하였다. 그 이후 의미를 제시할 때 앞에 괄호 안에 해당 의미와 공기히는 논항 명사 부류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시설)’, ‘(나라나 정부)’ 등으로 의미 기술에 앞서 괄호 표시로 논항 명사 부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논항 명사와 의미 기술을 한꺼번에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음은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나타나는 ‘서다’의 사전적 기술이다.

《연세한국어사전》 서다 [동사]

I	1. 바닥에 발을 대고 위를 향하여 몸을 곧게 하다.	천장이 낮아 서기는커녕 앉기조차 어려워 누워 있어야 했다.
	2. 가다가 멈추다.	교장은 달리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그 자리에 서리는 시늉으로 손을 저었다.
	3. (건물이나 시설이) 생기다.	며칠 새에 없던 빌딩이 서고, 공장이 서고 했다.
	4. (나라나 정부가) 생기다.	제1공화국이 선 지 31년이 되었다.
	5. (장 등이) 열리거나 벌어지다.	거기선 닷새마다 한 번씩 저자가 섰다.
	6. (질서 등이) 바로 잡히다.	과연 법도가 서 있는 태평성대라고 하겠습니까.
	7. (체계나 논리 등이) 짜임새가 있다.	진실이나 본질은 조화일 따름이라는 말은 논리가 선다.
	8. 마음에 정하다.	속으로는 수락산 꼭대기에는 결코 올라가지 않으리라는 결의가 서 있었다.
	9. (체면이) 바로 유지되다.	손아래 것들에게 음성을 낮출 수 있어야 권위가 서는 법이다.
	10. (어떠한 생각이) 잡히다.	도무지 판단이 안 서요.
	11. (무지개나 핏발 등이) 생기거나 나타나다.	차의 헤드라이트 주위로 안개 때문인지 무지개가 섰다.
	12. ㄱ. 꺾끗이 위로 번다. ㄴ. 위로 솟다.	ㄱ. 윤재는 머리칼이 서는 것 같았다. ㄴ. 그는 우뚝 선 코 날과 부리부리한 눈의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13. (줄이나 풀 따위가) 생기도록 만들다.	뺏뺏이 풀이 선 하얀 식탁보 위에 유리잔들이 놓여 있다.
	14. 여자 몸 속에 아이가 생기기 시작하다.	그러면서 늘 내 눈치를 살피시는 품이 애기가 섰는가를 알아보려 하시는 것 같았다.
	15. (날 등이) 날카롭게 되다.	어렸어서 일제히 퍼렇게 날이 선 칼들을 뽑아 들었다.
	16. 자리잡다.	세상이 끝나고 착한 백성들끼리 오손도

		손 시는 새 천지가 바로 서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II [...에]	1. 어디에 위치하거나 자리하다.	한때 나는 그들의 맨 뒷줄에 서 있었다.
	2. [‘서 있다’의 꼴로 쓰이에 (건물이나 나무 등이) 자리하거나 위치하다.	도로가엔 앙징스런 건물 한 채가 서 있다.
	3. (어떠한 처지나 입장에) 있게 하다.	그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고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섰습니다.
III [...을]	1.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하다.	내가 주례를 서겠네.
	2. 어떤 역할에 나서다.	순기는 맨 앞장을 섰다.
	3. 줄을 짓다.	그 강가에는 굽직한 플라타너스들이 열병을 서 있었다.
	4. (별 따위를) 받다.	영준이는 차라리 별을 서고 미술 점수를 잘못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자코 있었다.

앞에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 나타난 ‘서다’의 사전적 의미를 분석해본 결과, 일부 의미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 중 한 쪽에만 나타났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만 수록된 ‘서다’ 의미 기술이다.

표준 I-8. 물품을 생산하는 기계 따위가 작동이 멈추다.
표준 I-9. 남자의 성기가 발기되다.

《표준국어대사전》의 I-8 의미인 ‘물품을 생산하는 기계 따위가 작동이 멈추다’는 《연세한국어사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연세한국어사전》의 경우 I-2의 의미로 ‘가다가 멈추다’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준국어대사전》의 I-8 의미를 포괄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I-9 ‘남자의 성기가 발기되다’는 《연세한국어사전》에서 I-12 ‘꽃꽂이 위로 받다’의

의미 기술이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 《연세한국어사전》에서 I-12 의미에 대한 예문도 ‘윤재는 머리칼이 서는 것 같았다’, ‘그는 우뚝 선 코 날과 부리부리한 눈의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이다. 이처럼 《연세한국어사전》의 경우 대상을 한정짓지 않고 신체의 일부가 꺾듯이 위로 받는 것에 대해서 I-12의 의미로 기술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I-2에서 ‘쳐져 있던 것이 똑바로 위를 향하여 곧게 되다.’라는 의미 기술과 함께 ‘토끼의 귀가 쫓긍 서다.’라는 예문을 들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I-9에서 ‘남자의 성기가 발기되다’라는 특수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미를 따로 기술하는 것이 특이하다.

다음은 《연세한국어사전》에만 수록된 ‘서다’ 의미 기술이다.

연세 I-16. 자리잡다.
연세 III-4. (별 따위를) 받다.

《연세한국어사전》의 I-16 의미인 ‘자리잡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자면, I-5 의미인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가 올바르게 있게 되거나 짜이다.’라고 볼 수 있다. 《연세한국어사전》의 I-16 의미 예문은 ‘세상이 끝나고 착한 백성들끼리 오손도손 사는 새 천지가 바로 서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인데, 《표준국어대사전》의 I-5 의미 예문인 ‘교통질서가 서다.’와 비슷한 맥락의 예문으로 보인다. 《연세한국어사전》의 I-16 의미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I-5 의미 더욱 자세히 풀어쓴 것으로 보인다. 《연세한국어사전》 III-4 ‘(별 따위를) 받다’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비슷한 의미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 ‘별을 서다’의 경우 ‘서다’가 특수한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의미가 《연세한국어사전》에서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만 기술된 의미

- a. 《표준》 I-8. 물품을 생산하는 기계 따위가 작동이 멈추다.
《표준》 예문: 갑자기 기계가 선 이유는 정비 불량이었다.
《연세》 유사 기술: 연세 I-2. 가다가 멈추다.
《연세》 예문: 교장은 달리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그 자리에 서라는 시흥으로 손을 저었다.
⇒ 《연세》의 의미 기술이 《표준》의 의미 기술을 포괄한다.
- b. 《표준》 I-9. 남자의 성기가 발기되다.
《표준》 예문: 없음.
《연세》 유사 기술: I-12. 꽃꽂이 위로 번다.
《연세》 예문: 윤재는 머리칼이 서는 것 같았다.
⇒ 《연세》의 의미 기술이 《표준》의 의미 기술을 포괄한다.

(2) 《연세한국어사전》에만 기술된 의미

- a. 《연세》 I-16. 자리잡다.
《연세》 예문: 세상이 끝나고 착한 백성들끼리 오손도손 사는 새 천지가 바로 서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표준》 유사 기술: I-5.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가 올바르게 있게 되거나 짜이다.
《표준》 예문: 교통질서가 서다.
⇒ 《연세》의 의미 기술이 《표준》의 의미 기술을 포괄한다.
- b. 연세 III-4. (벌 따위를) 받다.
《연세》 예문: 영준이는 차라리 벌을 서고 미술 점수를 잘못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자코 있었다.
《표준》 유사 기술: 없음.
《표준》 예문: 없음.
⇒ 《연세》에만 의미기술이 되어있다.

이제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서다’ 의미 기술 방식에 통사적, 분석적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비슷한 의미를 기술한 경우라도 사전에 따라 그 세부 기술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예는 그중에서도 유독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의 기술에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표 안에서 이탤릭체로 따로 기술하겠다.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p>I-3. 계획, 결심, 자신감 따위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다.</p>	<p>I-8. 마음에 정하다. I-10. (어떠한 생각이) 잡히다. 《표준》에서는 하나의 의미로 기술한 것을 《연세》에서는 두 가지 다른 의미로 기술했다.</p>
<p>I-5.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가 올바르게 있게 되거나 짜이다.</p>	<p>I-6. (질서 등이) 바로 잡히다. I-7. (체계나 논리 등이) 짜임새가 있다. 《표준》에서는 하나의 의미로 기술한 것을 《연세》에서는 두 가지 다른 의미로 기술했다.</p>
<p>II-1. 부피를 가진 어떤 물체가 땅 위에 수직의 상태로 있게 되다.</p>	<p>II-2. [‘서 있다’의 꼴로 쓰이에 (건물이나 나무 등이) 자리하거나 위치하다. 《표준》과는 달리 《연세》에서는 ‘서 있다’의 꼴이라는 형태적 제약을 의미 기술에 사용했다.</p>
<p>II-2. 나라나 기관 따위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다.</p>	<p>I-3. (건물이나 시설이) 생기다. I-4. (나라나 정부가) 생기다. 《표준》에서는 하나의 의미로 기술한 것을 《연세》에서는 논항명사를 다르게 하여 두 가지 다른 의미로 기술했다.</p>
<p>II-3. […에]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다. 《연세》와는 달리 《표준》에서는 해당 의미가 통사적으로 […에]를 수반하는 구조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p>	<p>I-2. 가다가 멈추다.</p>
<p>III-1. […에]에게 체면 따위가 바로 유지되다. 《연세》와는 달리 《표준》에서는 해당 의미가 통사적으로 […에]에게를 수반하는 구조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p>	<p>I-9. (체면이) 바로 유지되다.</p>

이 절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서다’의 다양한 의미를 기술함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두 사전에서 나타나는 ‘서다’의 뜻풀이를 정리하고 이 중 《표준국어대사전》 또는 《연세한국어사전》 어느 한 쪽에서만 보이는 의미 기술을 살펴보았다. 또한 동일한 의미를 기술한 것일지라도 그 기술 방식에 있어서 통사적, 분석적 차이를 보이는 유형들을 분류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일부 ‘서다’의 의미 기술에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서다’의 기본의미로 ‘바닥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몸을 곧게 하다’라는 것에서는 일치を 보인다. 두 사전의 가장 큰 차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대부분의 의미가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라는 1번 의미로부터 확장된 것²⁾ 위주로 의미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연세한국어사전》의 경우 1번 의미는 ‘바닥에 발을 대고 위를 향하여 몸을 곧게 하다.’이지만, 2번 의미로 ‘가다가 멈추다.’라는 ‘수평적 이동 중 어떤 위치에서 정지’를 의미하는 뜻풀이가 중요하게 기술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사전의 기술 차이 중 어떤 방식이 더욱 타당한 기술인지 살펴보기 위해 4장에서 다의성을 분석하는 몇 가지 틀을 적용해보도록 하겠다.

2. 선행연구에 나타난 ‘서다’ 의미 분석

앞 절에서 살펴본 동사 ‘서다’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이 절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서다’의 의미를 어떻게 나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우선 최호철(1993)은 다음과 같이 ‘서다’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2)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도 I-8 의미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기계 따위가 작동이 멈추다.’, II-3에서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는 ‘멈추다’라는 의미를 기술할 때 통사적 조건으로 먼저 분류하고 I-8과 II-3에서 ‘멈추다’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연세한국어사전》의 기술방식보다 ‘멈추다’라는 의미를 기술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가 부각되지 않는다.

(3) 최호철(1993)의 ‘서다’ 의미 기술

1. 바닥에서 위를 향하여 몸을 곧게 하다.
2. 똑바로 위쪽으로 곧은 상태로 있다.
3. 땅위에 생기다.
4. 처음 이루어지다.
5. 움직임을 멈추다.
6. 있거나 놓이다.
7. 날카롭게 되다.
8. 열리다.
9. 생기거나 나타나다.
10. 이루어지다.
11. 바로잡히다.
12. 짜임새 있다.
13. 바로 유지되다.
14. 뱃속에 생기기 시작하다.
15. 말아서 하다.
16. 짓다

이 논의에서는 위와 같은 ‘서다’의 16가지 의미를 하나의 의소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서다’의 기본 의미를 설정한다.

(4) 최호철(1993)이 설정한 ‘서다’의 기본 의미

〈지정격(사람)/바닥에서 위를 향하여 몸을 곧게 하다〉

최호철(1993)이 나열한 ‘서다’의 16가지 의미는 결국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4)에서 제시한 ‘서다’의 기본의미 역시 두 사전에서 1번 뜻풀이로 기술하고 있는 의미이다.

박영순(1994)는 최호철(1993)에서 제시한 ‘서다’의 16가지 의미를 다시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의 어소로 봄으로써 결국 ‘서다’를 4개의 동음이의어로 다룰 것을 주장한다. 이 논의에서는 최호철(1993)에서 위계 없이 나열한 ‘서다’의 여러 의미들에 대해 구조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은 박영순(1994)에서 기술한 ‘서다’의 의미이다.

(5) 박영순(1994)가 기술한 ‘서다’의 의미

〈서다1〉 1. (자) 바닥에서 위를 향하여 몸을 똑바로 곧은 상태로 하다.

예: ㄱ. 그 자리에 서다.

ㄴ. 선두에 서다.

ㄷ. 2열로 줄을 서다.

2. (자) 바르게 되다.

예: ㄱ. 거리질서가 서다.

ㄴ. 말에 조리가 서다.

ㄷ. 먼목이 서다. 위신이 서다.

〈서다2〉 이루어지거나 생기다.

예: ㄱ. 우리 골목에 큰 건물이 섰다.

ㄴ. 닳새만에 장이 섰다.

ㄷ. 영화는 뱃속에 아이가 서서 입덧을 한다.

ㄹ. 치밀한 계획이 섰으니 이제 실천이 남았다.

〈서다3〉 움직임을 멈추다.

예: ㄱ. 기차가 서다.

ㄴ. 시계가 서다.

ㄷ. 선풍기가 서다.

〈서다4〉 말아서 하다.

예: ㄱ. 주반을 서다

ㄴ. 중매를 서다.

ㄷ. 들러리를 서다.

박영순(1994)는 위의 서다(1, 2, 3, 4)의 의미를 하나로 통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논의에서는 ‘서다’의 기본 의미로 아래 (6)과 같이 〈1〉번 뜻풀이에 나타난 의미를 제시한다.

(6) 박영순(1994)에서 설정한 ‘서다’의 기본 의미

〈바닥에서 위를 향하여 몸을 똑바로 곧은 상태로 하다〉

박영순(1994)는 위의 (6)과 나머지 서다(2, 3, 4) 간의 의미적 유연성이 없으므로, 결국 서다(1, 2, 3, 4)는 4개의 어소로 봐야 한다고 논의한다. ‘서다’는 형식은 같으나 다양한 의미로 전혀 다른 상황문맥에서 사용되므로, 특히 사전에서는 동음이의어로 주석을 해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박영순(1994)에서 ‘서다’를 4개의 어소로 보고 동음이의어로 사전에 등재해야 한

다는 주장은 앞서 II.1절에서 살펴본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서다’를 하나의 표제어로 처리하고 그 안에서 다의적 뜻을 나누는 것과 많은 입장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각각 다른 표제어로 사전에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박영순(1994)에서는 ‘서다’의 의미를 <1, 2, 3, 4> 4가지로 나누고 각각을 분류했지만, 사실 다시 살펴보면 박영순(1994)에서 제시한 서다2, 서다4의 경우 서다1로부터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서다3의 경우 서다1로부터 의미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박영순(1994)의 주장처럼 서다(1, 2, 3, 4)를 각각 다른 어소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서다(1, 2, 4)를 하나로 묶고, 서다3을 다른 어소로 처리하는 것이 사전학적인 입장에서는 더욱 덜 부담되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순(1994)의 논의는 최호철(1993)과는 달리 ‘서다’의 다양한 의미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박영순(1994)도 역시 다의적 의미의 연관성 유무에 따라 분류했을 뿐, 그 의미들 간의 세부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4장에서 ‘서다’의 다양한 의미들이 다의성에 대한 이론적 차원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최호철(1993)과 박영순(1994)는 둘 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의 ‘서다’의 1번 의미인 ‘몸을 곧게 하다’를 기본 의미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호철(1993)에서 제시한 ‘서다’의 의미 중 5번 의미인 ‘움직임을 멈추다’나 박영순(1994)에서 제시한 ‘서다3: 움직임을 멈추다’ 같은 경우 과연 ‘몸을 곧게 하다’라는 기본 의미 안에 포괄되는 것으로 정리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박영순(1994)는 서다(1, 2, 3, 4)의 의미를 나누고 각각을 다른 어소로 처리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영순(1994)의 서다1, 서다2, 서다4와 같은 경우 서다1을 기본으로 확장된 의미로 볼 수도 있겠으나, 서다3과 같은 경우는 서다1로부터 확장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서다’의 다양한 의미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해서는 III.3절에서 ‘서다’의 핵심 의미를 분석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III. ‘서다’의 다의성과 핵심 의미

1. ‘서다’의 원형 의미

임지룡(2009)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형태와 의미의 결합체로서 형태:의미가 일대일로 대응하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하나의 형태가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다의 관계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의미의 확장에 앞서 가장 근원이 되는 의미를 ‘원형 의미’라고 하는데, 임지룡(2009)는 원형 의미에 대해 그 범주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적인 의미로서, 인지적으로 두드러지며, 중립적인 문맥에서 가장 잘 활성화되며, 용법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특징을 지닌다고 정의한다. Cruse (1995)에서는 원형의미에 대해 ① 가장 초기의 의미를 가진 용법, ②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미, ③ 단어의 기준치, ④ 가장 타당한 변화 경로에 속하는 의미, ⑤ 인간 경험과 밀접한 의미 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원형의미의 개념을 살펴보면, ‘서다’의 원형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 및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서다’의 원형의미

- a. 표준국어대사전 기술 중 ‘서다’의 원형의미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
- b. 연세한국어사전 기술 중 ‘서다’의 원형의미
바닥에 발을 대고 위를 향하여 몸을 곧게 하다.
- c. 최호철(1993) 기술 중 ‘서다’의 원형의미
바닥에서 위를 향하여 몸을 곧게 하다.
- d. 박영순(1994) 기술 중 ‘서다’의 원형의미
바닥에서 위를 향하여 몸을 똑바로 곧은 상태로 하다.

2. ‘서다’의 의미 확장

다의어의 의미확장은 원형의 의미의 용법을 다른 국면에 적용한 것이다. Heine(1991)에서는 이에 대해 개념영역의 일반적인 확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8) PERSON > OBJECT > ACTIVITY > SPACE > TIME > QUALITY

(8)은 개념이 비유적으로 확장될 경우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 ‘활동’, ‘공간’, ‘시간’, ‘질’의 순서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임지룡(1996: 250)은 이를 바탕으로 의미확장의 양상을 다음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사람→짐승→생물→무생물〉의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사람’이다.

둘째, 〈구체성→추상성〉의 확장이다. 예를 들어 ‘밝다’의 경우 ‘빛’을 중심으로 〈색→표장→분위기→눈/귀→사리〉의 밝음으로 확장된다.

셋째, 〈공간→시간→추상〉의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공간’으로 이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지각할 수 있는 범주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간성, 추상성’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짧다’라는 어휘는 ‘길이’의 척도인 ‘연필이 짧다’에서 ‘시간이 짧다’, ‘경험이 짧다’ 등으로 확장된다.

넷째, 〈물리적→사회적→심리적〉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물리적 공간’으로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심리적 공간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있다’의 경우 〈서재에 있다→삼성라이온스에 있다→피음속에 있다〉로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

다섯째, 〈일반성→비유성→관용성〉의 확장이다. 이 경우 확장의 기준점은 ‘일반성’이다. 언어는 일차적으로 글자 그대로의 용법을 중심으로 쓰이며, 이차적으로 비유성을 획득하는데, 비유가 한층 굳어져서 관용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짧다’에서 ‘연필이 짧다’는 글자 그대로의 일반적인 표현이며, ‘경험이 짧다’는 추상적인 비유 표현이며 ‘입이 짧다’는 관용표현이다.

여섯째, 〈내용어→기능어〉의 확장이다.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어는 기능어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서 국어의 보조용언 등은 내용어에서 기능어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위와 같은 의미확장의 양상을 통하여 ‘서다’의 의미확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서다’의 의미확장을 고찰함으로써 ‘서다’의 다양한 의미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서다’가 보이는 <사람→짐승→생물→무생물>의 확장이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유형의 의미 확장을 관찰할 수 있다.

- ① [사람] 철수가 운동장에 차렷 자세로 서있다.
- ② [짐승] 토끼가 뛰다가 섰다.
- ③ [생물] 한 그루의 나무가 교문 옆에 서 있다.
- ④ [무생물] 칼날이 시퍼렇게 서다.

이 유형에서 보이는 ‘서다’의 의미확장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최호철(1993), 박영순(1994)가 제시한 ‘서다’의 원형 의미인 ‘몸을 곧게 하다’로부터 확장된 것이다.

둘째, ‘서다’가 보이는 <구체성→추상성>의 확장이다.

- ① [구체성] 차렷 자세로 서다.
- ② [추상성] 결심이 서다.

이 유형에서 보이는 ‘서다’의 의미확장은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최호철(1993), 박영순(1994)가 제시한 ‘서다’의 원형 의미인 ‘몸을 곧게 하다’로부터 확장된 것이다.

셋째, ‘서다’가 보이는 <공간→시간→추상>의 확장이다.

- ① [공간] 산골에도 학교가 서다.
- ② [시간] 없음.
- ③ [추상] 반대 입장에 서다.

이 유형에서 보이는 ‘서다’의 의미확장은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최호철(1993), 박영순(1994)가 제시한 ‘서다’의 원형 의미인 ‘몸을 곧게 하다’로부터 확장된 것이다.

넷째, ‘서다’가 보이는 <물리적→사회적→심리적> 확장이다.

- ① [물리적] 이곳에는 오일장이 선다.
- ② [사회적] 없음
- ③ [심리적] 위신이 서다.

이 유형에서 보이는 ‘서다’의 의미확장은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최호철(1993), 박영순(1994)가 제시한 ‘서다’의 원형 의미인 ‘몸을 곧게 하다’로부터 확장된 것이다.

다섯째, ‘서다’가 보이는 <일반성→비유성→관용성>의 확장이다.

- ① [일반성] 차렷 자세로 서다.
- ② [비유성] 결심이 서다.
- ③ [관용성] 별을 서다.

이 유형에서 보이는 ‘서다’의 의미확장은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최호철(1993), 박영순(1994)가 제시한 ‘서다’의 원형 의미인 ‘몸을 곧게 하다’로부터 확장된 것이다.

여섯 번째인 <내용어→기능어>의 확장은 ‘서다’의 의미 확장에서는 특별히 관찰되지 않는다.³⁾

‘서다’의 의미 확장을 살펴본 결과 임지룡(1996)이 제시한 모든 유형의 의미 확장에서 ‘서다’의 경우 원형 의미 ‘몸을 곧게 하다’로부터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사용된 ‘서다’의 경우 어떤 식으로 의미 확장을 분석해야 할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

- (9) a. 달리던 기차가 교차로에서 섰다.
- b. 시계가 섰다.
- c. 철수는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문 앞에서 섰다.

(9)의 예문에서 사용되는 ‘서다’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의미 확장의 6가지 유형에 넣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유형들은 모두 ‘몸을 곧게 하다’라는 원형 의미로부터 바로 확장된 것인 반면, (9)에서 나타나는 ‘서다’의 경우 ‘멈추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기 때문이다. (9)의 예문에서 사용된 ‘서다’의 경우 원형의 의미로부터 바로 확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원형의 의미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두 가지 이

3) 이는 내용어에서 기능어로의 확장은 주로 보조용언이나 조사에서 나타나는 데 이 절에서 다루고 있는 ‘서다’의 예는 모두 본용언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상의 핵심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핵심의미를 설정함으로써 원형의미로부터 많이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9)와 같은 경우의 ‘서다’ 예문의 의미 확장을 보다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다음 절에서는 (9)와 같은 예문을 고려하여 ‘서다’의 핵심의미를 두 가지로 설정해보겠다.

3. ‘서다’의 두 가지 핵심의미(core meaning)

임지룡(2009)에서는 다의적 용법 간에 원형의미와 관련된 두 가지 이상의 핵심의미(core meaning)를 부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다의어 ‘목’의 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10) 표준국어대사전 ‘목’의 기술

- 「1」 척추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잘록한 부분.
- 「2」 목구멍.
- 「3」 목을 통해 나오는 소리.
- 「4」 어떤 물건에서 동물의 목과 비슷한 부분.
- 「5」 자리가 좋아 장사가 잘되는 곳이나 길 따위.
- 「6」 통로 가운데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
- 「7」 곡식의 이삭이 달린 부분
- 「8」 『북한어』 일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요긴한 대목.

임지룡(2009)는 ‘목’은 사전에서 1번 의미인 ‘사람의 목’이라는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다의적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서, 핵심의미는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잘록한 부분〉, 〈신체 부위나 사물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 중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잘록한 부분〉이라는 핵심의미를 공유한 ‘목’의 다의적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기술 중 2, 3, 4, 6, 7이고, 〈신체 부위나 사물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핵심의미를 공유한 ‘목’의 다의적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기술 중 5, 8이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서다’의 핵심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한 ‘서다’의 다의적 의미이다.

(11) 표준국어대사전 ‘서다’의 기술

- [1] 「1」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
 「2」 처져 있던 것이 똑바로 위를 향하여 곧게 되다.
 「3」 계획, 결심, 자신감 따위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다.
 「4」 무딘 것이 날카롭게 되다.
 「5」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가 올바르게 있게 되거나 짜이다.
 「6」 아이가 배 속에 생기다.
 「7」 줄이나 주름 따위가 두드러지게 생기다.
 「8」 물품을 생산하는 기계 따위가 작동이 멈추다.
 「9」 남자의 성기가 발기되다.

[2] 【…에】

- 「1」 부피를 가진 어떤 물체가 땅 위에 수직의 상태로 있게 되다.
 「2」 나라나 기관 따위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다.
 「3」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다.
 「4」 사람이 어떤 위치나 처지에 있게 되거나 놓이다.
 「5」 장이나 씨름판 따위가 열리다.
 「6」 어떤 모양이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

[3] 【…에/에게】

체면 따위가 바로 유지되다.

[4] 【…을】

- 「1」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다.
 「2」 줄을 짓다.

[5] 『북한어』 문제 따위가 설정되거나 나서다.

‘서다’의 원형 의미는 사전에서 1번 의미인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서다’의 의미 기술을 본다면, 사전상 1번 의미인 원형의미로부터 ‘수직으로 곧게 하다’라는 핵심 의미가 도출됨을 알 수 있고, 실제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수직으로 곧게 하다’라는 핵심 의미에 치중하여 ‘서다’의 의미 기술을 하고 있다.⁴⁾ 다음 (12)에서는 《연세한국어사전》에서의 ‘서다’ 뜻풀이를 참

4)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중 I-8의 경우 ‘물품을 생산하던 기계 따위가 작동하다 멈추다’, II-3에서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멈추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직으로 곧게 하다’라는 핵심 의미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은 ‘멈추다’로 사용된 ‘서다’의 경우는 통사적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 의

고하겠다.

(12) 연세한국어사전 ‘서다’의 기술

[1] 「1」 바닥에 발을 대고 위를 향하여 몸을 곧게 하다.

「2」 가다가 멈추다.

「3」 (건물이나 시설이) 생기다.

「4」 (나라나 정부가) 생기다.

「5」 (장 등이) 열리거나 벌어지다.

「6」 (질서 등이) 바로 잡히다.

「7」 (체계나 논리 등이) 짜임새가 있다.

「8」 마음에 정하다.

「9」 (체면이) 바로 유지되다.

「10」 (어떠한 생각이) 잡히다.

「11」 (무지개나 핏발 등이) 생기거나 나타난다.

「12」 ㄱ. 꽃꽂이 위로 벌다.

 ㄴ. 위로 솟다.

「13」 (줄이나 풀 따위가) 생기도록 만들다.

「14」 여자 몸 속에 아이가 생기기 시작하다.

「15」 (날 등이) 날카롭게 되다.

「16」 자리잡다.

[2] […에]

「1」 어디에 위치하거나 자리하다.

「2」 [‘서 있다’의 꼴로 쓰이에 (건물이나 나무 등이) 자리하거나 위치하다.

「3」 (어떠한 처지나 입장에) 있게 하다.

[3] […을]

「1」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하다.

「2」 어떤 역할에 나서다.

「3」 줄을 짓다.

「4」 (별 따위를) 받다.

앞서 II.1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연세한국어사전》의 경우 ‘서다’의 의미 기술 중 2번 의미로 ‘가다가 멈추다’를 들고 있다. 이러한 《연세한국어사전》의 뜻풀이에 따르면 ‘서다’의 원형의미로부터 2가지 핵심의미가 나

미기술을 하고 있으며, ‘멈추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임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온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와 마찬가지로의 핵심 의미인 ‘수직으로 곧게 하다’의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지점에 정지하다’의 의미이다.

《연세한국어사전》의 기술을 살펴보면 I-1에는 ‘바닥에 발을 대고 위를 향하여 몸을 곧게 하다.’라는 ‘수직으로 곧게 하다’라는 핵심의미가 나타나고, I-2에는 ‘가다가 멈추다.’라는 ‘어떤 지점에 정지하다’라는 핵심의미가 나타난다.

앞서 2.2절에서 살펴본 박영순(1994)에서의 ‘서다’ 의미 기술을 논의를 위해 다시 가져오겠다.

(13) 박영순(1994)가 기술한 ‘서다’의 의미

<서다1> 1. (자) 바닥에서 위를 향하여 몸을 똑바로 곧은 상태로 하다.

- 예: ㄱ. 그 자리에 서다.
 ㄴ. 선두에 서다.
 ㄷ. 2열로 줄을 서다.

2. (자) 바르게 되다.

- 예: ㄱ. 거리질서가 서다.
 ㄴ. 말에 조리가 서다.
 ㄷ. 먼목이 서다. 위신이 서다.

<서다2> 이루어지거나 생기다.

- 예: ㄱ. 우리 골목에 큰 건물이 섰다.
 ㄴ. 닷새만에 장이 섰다.
 ㄷ. 영화는 뱃속에 아이가 서서 입덧을 한다.
 ㄹ. 치밀한 계획이 섰으니 이제 실천이 남았다.

<서다3> 움직임을 멈추다.

- 예: ㄱ. 기차가 서다.
 ㄴ. 시계가 서다.
 ㄷ. 선풍기가 서다.

<서다4> 말아서 하다.

- 예: ㄱ. 주변을 서다
 ㄴ. 중매를 서다.
 ㄷ. 들러리를 서다.

박영순(1994)에서 제시한 서다1, 서다2, 서다4의 경우에도 핵심의미를 ‘수직으로 곧게 하다’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서다3의 경우 ‘멈추다’라는 해

석을 하고 있으며, 서다₃의 경우 핵심의미를 ‘어떤 지점에 정지하다’로 잡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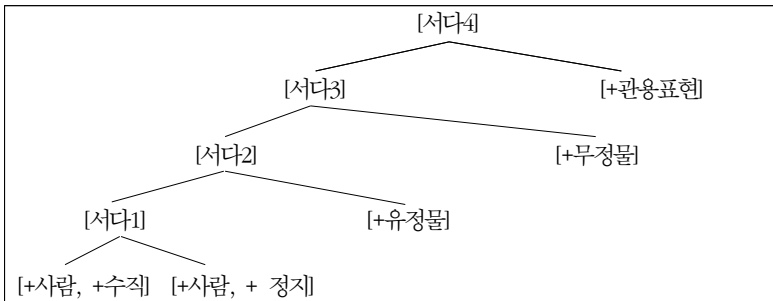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박영순(1994)에서 기술한 ‘서다’의 다양한 의미를 크게 2가지의 핵심의미로 분석하였다. ‘서다’의 핵심의미는 첫째, ‘수직으로 몸을 곧게 하다’이고, 둘째 ‘어떤 지점에 정지하다’이다.

IV. ‘서다’의 의미 구조 분석

1. 의미망 구조를 통한 ‘서다’의 의미 분석

Langacker(1987)은 ‘한 단어의 다의적 의미는 관련된 의미망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한 단어의 다양한 의미들은 유사성을 통하여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관계를 맺으며, 공통성을 통하여 수직적으로 도식된다. 이를 기반으로 ‘서다’의 의미망을 그려보고자 한다.

‘서다’의 의미는 1차적으로 수형도의 맨 아래와 같이 [+사람]과 함께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 절에서 ‘서다’의 핵심의미로 ‘수직으로 몸을 곧게 하다’와 ‘어떤 지점에 정지하여 위치하다’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수직]은 ‘철수가 책상 위에 섰다.’와 같이 ‘바닥에 발을 대고 위를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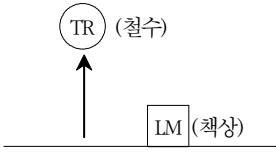
〈그림 1〉 ‘서다’의 의미망 구조

몸을 곧게 하다'라는 사전에서의 1번 의미이고, [+정지]는 '어디에 정지하다'라는 의미로 '시계가 섰다'와 같은 예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다'의 핵심 의미는 '수직적 곧은 자세'와 '정지하다' 두 가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의미를 가장 하위 단계에 놓기로 한다. 이러한 1차 의미를 기반으로 이후 단계가 올라갈수록 '서다'를 취하는 대상이 [+유정물], [+무정물]로 확대되면서 '수직으로 몸을 곧게 하다'라는 핵심 의미를 가진 '서다'의 경우 '머리칼이 섰다', '신념이 섰다'와 같은 다양한 구문에서 사용되는 의미로 확대되고, '어떤 지점에 정지하여 위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서다'의 경우 '시계가 섰다'와 같은 의미로 확대된다. 또한 마지막에 [+관용표현]은 '벌서다'와 같이 관용화 된 표현에서 사용되는 '서다'의 의미로, 가장 최후에 확대된 것으로 파악한다.

2. 탄도체(trajector)와 표지(landmark)를 통한 '서다'의 핵심의미(core meaning)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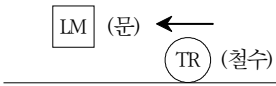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서다'의 다양한 의미를 Brugman&Lakoff(1988)의 탄도체-표지 논의에 맞추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러 유형의 예문에서 나타나는 '서다'가 어떤 식으로 탄도체-표지 분석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춘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 나타난 '서다'의 어휘 의미와 예문들을 분석해본 결과, 논항명사와 세부적 의미 기술은 차이가 조금씩 있었지만, 탄도체-표지로 유의미하게 구별되어 도식화될 수 있는 예문 유형은 다음 (14)~(15)와 같이 나타났다. 또한 앞에서 '서다'의 두 가지 핵심 의미로 '수직으로 몸을 곧게 하다'이고, '어떤 지점에 정지하여 위치하다'를 설정하였는데, 이 두 가지 핵심의미는 탄도체-표지 구조에서도 다른 유형의 그림으로 표현된다. 먼저 '서다'의 첫 번째 핵심의미인 '수직으로 몸을 곧게 하다'부터 (14)번에서 탄도체-표지로 도식화해보겠다(탄도체 TR, 표지 LM).

(14) 철수가 책상 위에 섰다. (위를 향하여 수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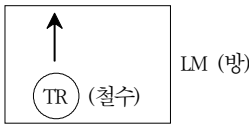
‘서다’의 두 번째 핵심의미인 ‘어떤 지점에 정지하여 위치하다’의 경우 (15)와 같이 탄도체-표지 도식으로 나타난다.

(15) 철수가 문 앞에 섰다. (한 곳에 정지하여 위치하다)



(15)의 경우 LM 자리에 어떠한 명사가 와도 동일한 탄도체-표지 구조로 표현된다. 그러나 (14)의 경우는 LM 자리에 오는 명사 유형이 바뀌면 다른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14') 철수가 방 안에 서 있다. (위를 향하여 수직적)



(14)와 (14')은 LM자리 명사에 차이를 보인다. (14)에서 LM인 책상은 그 내부에 TR인 철수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임에 반해, (14')에서 LM인 방은 그 내부에 TR인 철수가 들어갈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하게 ‘수직으로 몸을 곧게 하다’라는 첫 번째 핵심 의미를 지닌 ‘서다’일지라도 탄도체-표지 구조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고에서는 ‘서다’의 다의적 의미들을 살펴보고, ‘서다’류 합성어를 통해

‘서다’의 여러 의미 중 기본 의미가 무엇인지 추정해보았다.

II장에서 ‘서다’의 의미를 《표준국어문법론》과 《연세한국어사전》을 통하여 동일한 동사 ‘서다’에 대해 각 사전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의적 의미를 기술하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최호철(1993), 박영순(1994)에서 정리한 ‘서다’의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연구자별로 ‘서다’의 다의성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최호철(1993)과 박영순(1994)에서는 ‘서다’의 기본 의미를 ‘바닥에서 몸을 곧게 하여 똑바로 하다’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II.1절에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설정한 ‘서다’의 1번 의미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연세한국어사전》과 박영순(1994)의 의미 기술을 살펴본 결과 ‘서다’의 의미 중 ‘멈추다’를 별도의 핵심의미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II.1절에서 ‘서다’의 원형의미를 ‘몸을 곧게하다’로 잡고, 그로부터 두 가지 핵심의미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III.3절에서는 ‘서다’의 두 가지 핵심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다’의 핵심 의미로는 ‘바닥에서 몸을 곧게 하다’라는 수직적 자세동사의 의미 이외에도 ‘정지하여 위치하다’라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시계가 서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바닥에서 몸을 곧게 하다’라는 핵심 의미보다는 ‘정지하여 위치하다’라는 핵심 의미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IV.1절, IV.2절에서 다양한 다의적 의미 분석 기제 가운데 인지언어학적 틀을 통해 ‘서다’의 다의성을 고찰한 것을 통하여도 밝힐 수 있었다. IV.1절에서는 다의성을 지닌 ‘서다’의 여러 의미들이 각각 상관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다’의 두 가지 핵심의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지닐 수 있음을 의미망 구조를 통하여 밝혔다. IV.2절에서는 Brugman&Lakoff(1988)의 탄도체표지 이론을 통하여 ‘서다’의 두 가지 핵심 의미가 다른 유형의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서다’의 의미 기술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16) ‘서다’의 의미 기술

원형의미: 몸을 곧게 하다.

핵심의미 「1」 수직적으로 몸을 곧게 하다.

- ① 사람, 동물, 사물이 수직적으로 몸을 곧게 하다.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
쳐져 있던 것이 똑바로 위를 향하여 곧게 되다.
무딘 것이 날카롭게 되다.
부피를 가진 어떤 물체가 땅 위에 수직의 상태로 있게 되다.
남자의 성기가 발기되다.

- ② 생기다, 나타나다.
계획, 결심, 자신감 따위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다.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가 올바르게 있게 되거나 짜이다.
아이가 배 속에 생기다.
줄이나 주름 따위가 두드러지게 생기다.
나라나 기관 따위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다.
어떤 모양이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
장이나 씨름판 따위가 열린다.

- ③ 어떤 상태로 있게 되다.
사람이 어떤 위치나 처지에 있게 되거나 놓이다.
체면 따위가 바로 유지되다.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다.
줄을 짓다.

핵심의미 「2」 정지하여 위치하다.

- 가다가 멈추다.
물품을 생산하는 기계 따위가 작동이 멈추다.

(16)의 ‘서다’의 의미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핵심의미 「1」, 「2」는 모두 원형의미로부터 나온 것이다.

둘째, 핵심의미 「1」의 3가지 의미 기술 중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①이고, ②, ③으로 갈수록 의미가 추상적, 은유적으로 확장된다.

셋째, 핵심의미 「2」는 원형의미로부터의 거리가 핵심의미 「1」보다 멀다. 또한 합성어 형성에서 사용되는 ‘서다’의 쓰임을 고려하였을 때 핵심의미 「2」는 핵심의미 「1」보다 나중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며, 핵심의미 「2」는 ‘서다’가 본용언으로 쓰일 때 주로 출현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쓰임의 생산성이 핵심의미 「1」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1. 사전류

-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편, 『연세한국어사전』.

2. 논저류

- 강기진(1985), 국어 다의어의 의미구조, 한국문학연구 8, 25-41.
강범모(2002), 생성어휘부 이론의 다의어 기술 방법과 그 적용: “사다”와 “팔다”, 어학연구 38-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75-293.
김용균(2014), 동사의 의미 확장 양상 연구: ‘버리다’를 연구 대상으로, 한국어 의미학 44, 345-366.
김신희(2009), 국어사전의 다의어의 기술에 대하여: 용언의 경우, 언어사실과 관점 23, 153-185.
김윤신(1995), 타다 동사의 논항교체와 다의성, 언어학 43, 한국언어학회, 239-269.
김현권(2004), 동사의 다의와 전자사전에서의 표상, 언어학 38-0, 한국언어학회, 89-122.
남경완(2014), 국어 동사 다의성 연구의 흐름과 쟁점, 한국어 의미학 46, 111-139.
남경완·이동혁(2004), 틀의미론으로 분석한 ‘사다’와 ‘팔다’의 의미 분절 양상, 언어 29-1, 1-24.
도원영(2012), 다의어의 단의 간 역학 관계에 관한 시고, 한국어 의미학 37, 105-133.
박영순(1994), ‘대다, 가다, 보다, 서다, 들다’의 의미에 대하여, 한국어학 1, 223-247.
배도용(2002), 사전에서의 다의어 배열 순서 연구: 다의어 ‘손’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15, 53-76.
서경원(2005), 생성어휘론의 다의어 기술, 언어연구 20-3, 1-22.
이관규(1994), 합성동사 구성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 1, 365-387.
이민우(2008), 국어 동사 ‘지다’의 다의적 의미관계 분석, 한국어 의미학 27,

- 127-150.
- 이승명(1969), 동음어의 연구A: 생성요인의 규명을 위한 시론, *어문학* 20, 45-69.
- 이양혜(2005), 인지언어학적 접근 방법에 따른 합성어의 의미 변화 연구, *우리말글* 17, 123-149.
- 이종열(2005), ‘떡다’의 다의적 의미와 구문적 확장, *한국어학* 27, 249-277.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 229-261.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2001), 다의어 ‘사다’, ‘팔다’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국어국문학* 129, 165-190.
- 임지룡(2009),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 의미학* 28, 193-226.
- 정병철(2007), 다의 동사 ‘잡다’의 인지적 접근에 의한 사전 처리 연구, *한국어 의미학* 24, 243-273.
- 조경임(2005), 국어 동사 ‘듣다’의 의미 생성 연구, *한국어학* 28, 185-216.
- 천시권(1977), 다의어의 의미 분석, *국어교육연구* 9, 경북대학교, 1-9.
- 최호철(1993), 현대 국어 서술어의 의미 연구: 의소 설정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홍재성·김현권(2003), Mel’cuk의 설명결합사전과 한국어 동사 ‘사다/팔다’의 의미 기술, *언어학* 35, 39-75.
- Brugman, C. and G. Lakoff(1988), Cognitive topology and lexical networks, *Cognitive Linguistics: Basic Readings*, Mouton de Gruyter.
- Cruse(1995), Polysemy and related phenomena from a cognitive linguistic viewpoint in P. Dizier & E. Viegas eds, *Computational lexical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3-49.
- Heine, B. et al.(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1, Stanford University Press.
- Nunberg, G.(1995), Transfers of Meaning, *Journal of Semantics* 12-2, 109-132.